빚더미 이탈리아, '기본소득제' 시동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꾸려갈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7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전날부터 전국의 우체국과 조세지원센터(CAF), 기본소득을 주관하는 웹사이트에서 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월 수입이 780유로(약 950달러)가 안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1인당 40~780 유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월 최대 1천300유로의 지원을 받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실업률의 상승과 맞물려 지난 10년 간 빈곤층이 빠르게 늘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지난 1월 기준으로 각각 10.5%, 33%로 유럽연합(EU)에서 각각 3번째, 2번째로 높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가시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노동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센터를 혁신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령층 등을 제외하고 노동이 가능한 기본소득 신청자는 직업 센터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 직업 알선을 받거나, 취업 훈련을 받도록 했다.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계속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수령자가 직업센터에서 알선한 일자리를 3차례 연속 거절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미, 사우디 사드 수출 카슈끄지 살해 면죄부 의혹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수출하는 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사우디에 150억 달러 규모의 사드를 수출하는 계약금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약 1억 달러를 받았다.

5일 '뉴스1' 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날 사우디에 사드를 수출하는 계약금으로 록히드마틴에 9억4,6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우디의 미사일 방어 시설을 새로운 사드 기술로 향상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우디와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협상했으며, 그중 150억 달러 규모의 사드를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에 따르면, 사우디는 사드 44대와 미사일 및 관련 장비 등을 수입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은 사우디에 비판적인 언론인이던 자말 카슈끄지의 사망 사건의 배후로 사우디가 거론되던 시기에 이뤄져 논란이 됐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면서 면죄부를 샀다는 것.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우디를 감쌌다. 이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가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 작년 3월 미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왼쪽)와 만나 사우디가 구매하기로 한 무기 목록을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방위산업체에도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이처럼 사우디는 미국을 등에 업고 카슈끄지 살해와 예맨 내전 개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보복성 제재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이번 사드 거래를 통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커들, 미 사이버 공격 …기술 탈취 목적

중국의 해커들이 군사용 해양 기술 연구결과를 탈취할 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20개가 넘는 대학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

5일 '뉴시스'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하와이대학, 워싱턴 대학,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 최소 27개의 대학이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된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해양 기술 연구에 집중했거나 관련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WSJ은 "미국 군사 및 경제 기밀을 탈치하려는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과 무관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 해군은 성명에서 중국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컴퓨터 보안 전문업체 '아이디펜스(iDefense)' 의 정보 책임자인 하워드 존스는 "대학은 학술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며 "대학들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 드러났다." 라고 말했다.

스마트한 기능성 섬유 향수 hóok
LIFESTYLE FRAGRANCE

99% 향균/탈취효과로 후각을 괴롭히는 섬유나 신발, 공기중의 오염된 냄새를 제거하고 은은하고 독특한 향 그대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섬유향수!

대한민국 좋은제품 HIT500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히트500상품선정

섬유용 차량용 신발용 애완동물용 헤어용

출시 3개월만에 한국 유명백화점, 디자인샵, 면세점등 입점 완료!!

구입처
지구촌약국 EARTH VILLAGE PHARMACY
714.228.9212
5161 Beach Blvd. #C
Buena Park, CA 90621
젬젬
949.250.9500

*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hook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